

과 원주에 위치한 2개 대학병원의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회수된 372부의 설문지에 대해 상관관계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방법: 1) 환자안전문화와 관련하여 독립변수들의 개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부서 내 의사소통이 3.76으로 가장 높았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2.90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종속변수인 환자안전관리활동은 3.42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병원 근무 연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안전사고 모니터링, 부서 간 업무협조, 부서 내 업무 협조, 부서 내 의사소통, 간호사 환자안전 의식수준, 부서 내 상관의 태도, 경영진의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영진의 태도, 부서 내 의사소통, 그리고 간호사의 환자안전 의식수준 순으로 간호사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환자안전관리활동 변수의 변이를 37.9% 설명해 주었다.

결론: 병원에서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은 경영진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경영진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태도의 전환이 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서 내 의사소통과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교육의 실시, 적정업무 부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부서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부서 관리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shpa-5

에피소드 기준을 이용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자료의 재분석: 한방병원 입원의료양상을 중심으로

An episode-based analysis using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 claims data: utilization of oriental hospitals

고수경¹⁾, 민지현²⁾, 박다진¹⁾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고 전산매체를 이용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우리나라 인구의 의료이용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자료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들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에 관련된 모든 진료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되게 되면서,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원천적으로 비급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규모의 의료이용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동일입원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청구시기에 따라 여러 청구건으로 나뉘게 되고, 요양기관별로 그 행태 또한 다르므로 건강보험 청구자료상의 “건(case)”이 실제 “진료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재구축하여 ‘실제 건강보험 진료건에 따른’ 의료이용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존에 보고되었던 ‘건강보험 청구건’에 따른 의료이용양상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의료이용양상 분석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1999년부터 2004년 4월까지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의 청구 명세서를 직접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방병원 입원 환자의 성별, 연령별, 주상병별 분포 및 이러한 특성에 따른 입원기간과 총 진료비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건강보험 청구건 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때, 청구건은 다르지만 동일 의료기관, 동일 환자, 동일 주상병, 앞 건의 퇴원일자에 연속된 입원일자를 보이는 청구건의 경우 동일 입원건으로 간주하여 한 건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2003년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한 건강보험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43.3%, 여자 56.7%로 2003년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성별 분포에 비해 여자 환자 및 노인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중 37.6%가 후기 고령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3.5일이었으며, 입원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전체 환자의 21.5%를 차지하였다. 평균 총 진료비는 799,919원, 평균 입원일당 진료비는 32,837원이었다. 상병에 따라 입원기간의 분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계질환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27.9일이었으며, 30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비중이 29.0%로 다른 상병군에 비해 입원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여자 환자의 비율 및 노인 환자의 비율이 더 높고 평균 입원기간도 더 길다. 위 결과를 기존에 건강보험 청구건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던 결과들과 비교하여 보면,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실제의 입원건에 비해 입원기간을 짧게 추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통계상에서도 한방병원에서 30일 이상의 입원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에피소드 기준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건을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 비해 입원기간과 건당 진료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입원환자의 의료이용양상을 분석하는 경우 에피소드 개념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청구행태를 반영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shpa-6

대북지원에 관한 주요 신문 사설과 칼럼 분석(1993-2005): 보건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s' Editorial and Column on the Aid for North Korea(1993-2005): its implication for health policy

신상진¹⁾, 신영전¹⁾

1)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대북지원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따라서 대북지원에 대한 보도동향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99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대북지원 관련 신문사설과 칼럼에 나타난 보도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계획과 수행에서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방법: 국내 일간지별, 시기별, 지원 분야별 대북지원에 대한 보도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3년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